



©아셰르 인트레이터, 2008년 5월 31일

##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번 주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 예슈아의 복음이 엄청난 수의 대중들에게 증거되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1. 이스라엘 Jews for Jesus 의 단 세레드 Dan Sered 는, 인기 있는 2 번 채널의 쇼 프로그램 <굿모닝 이스라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2. 선물 꾸러미로 포장된 폭탄에 부상을 입은 (그러나 기적적으로 생존한) 아미엘 오르티즈의 가족들이 1 번 채널 주간 TV 잡지 인터뷰 기사에 실렸습니다.
3. 한 메시아닉 10 대가 “스타 탄생 A Star is Born”이라는 인기리의 쇼 프로그램의 오디션을 통과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소녀가 시편 찬양을 불렀을 때, 그 음악에 임한 기쁨 부으심과 아름다운 목소리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4. 오르 예후다 Or Yehuda 시의 부시장이 계획하여 신약 성경들을 불태운 사건이 마아리브 Maariv 지의 두 면을 컬러로 차지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한 초정통과 유대인과 복음을 나눠 왔는데, 그가 자신의 랍비에게 제가 한 얘기에 대해 물어봐도 되냐고 했습니다. 저는 랍비가 저랑 대화를 했다는 사실에 화를 낼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그는 랍비가 자신에게 소리를 쳐대기 시작했을 때 충격에 빠졌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랍비의 분노에 상처를 입었고 이제 저희의 신앙이 무언지에 대해 더욱 알기 원합니다.

로마서 11:26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는 말씀의 씨앗이 오늘날 바로 저희 눈 앞에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눈 앞에 임한, 이 중요한 국가적 부흥의 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 영적 전쟁

동시에 많은 이스라엘 성도들이 제게 와 고린도 후서 4:8-9 말씀을 체험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곤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살아있는 증거들과 더불어 많은 영적 압박과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돌파구 가운데 있는 저희의 심정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장교인 제 큰 아들은 주요 전투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들과 스트레스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것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샤울(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해 권고한 바를 떠올리게 합니다. **에베소서 6:12-13**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무장을 하십시오.” 때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 외엔 남은 게 없고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일입니다.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을 한 뒤, 우리는 두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엡 6:19**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고전 14:14-15**). 때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기엔 전혀 힘이 없을 때라도 말이죠.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

우리가 그러한 압박감을 느낄 때 해야 할 또 다른 기도는 겐세마네에서 예수아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때 예수아께서 어떠셨습니까? “근심하며 괴로워하셨고,”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셨으며” 버림 받고 지쳐버린 상태이셨습니다(**마 26:37-41**).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중대한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영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어둠의 감정들, 상실감, 무절제, 패배감이 몰려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의 기도를 그저 반복할 이유입니다. 싸움에서 지고 있는 기분이 들 때라도 그저 버틸 수는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시며, 예수아처럼 깊은 성품과 자질을 우리 안에 주실 것입니다.

## 박해- 담대함- 기적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더 얻어갈수록 핍박의 강도도 세졌습니다. 복음이 어둠을 뚫고 힘있게 침투할수록, 박해의 반응도 큰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 가능한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앞으로 더 많이 증거하려는 담대함이어야겠지요. 그리고 치유의 기적을 위한 능력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29**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사도들은 현재 수준의 복음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적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적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이미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매도 맞고, 옥에도 갇혀 보았습니다.

그들이 한 말은, “주님, 저희가 이미 저희 수준의 담대함에 준하는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에겐 문제가 안 됩니다. 저희에게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고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것이 저희에게 더 큰 핍박을 불러올 것을 알지만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고, 그와 더불어 기적과 이사를 베풀 수만 있다면  
핍박은 개의치 않겠습니다. "

핍박이 강화되면 우리에게 하나됨이 찾아옵니다. 대적이 우리 모두를 공격하면, 우리가 한 몸의  
지체들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박해와 더불어, 더 많은 구원과 기적, 연합이 있도록 기도해야  
겠습니다.

번역- 고병현

*Shaul Byunghyun Go*